

Sport Industry

SI포커스



국민체육진흥공단

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

Korea Institute of Sport Science

수상 레저스포츠산업 현황 분석 : 「2020 레저스포츠산업 실태조사」를 중심으로

류 윤 지(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

- I 서론
- II 본론: 수상 레저스포츠산업 현황 비교·분석
- III 결론

요 약

SI포커스 69호에서는 국내 수상 레저스포츠산업의 현황을 분석하고, 각 업종별 주요 항목들을 비교하여 수상 레저스포츠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정책지원 방향의 토대가 되는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첫째, 전체 수상 레저스포츠산업의 현황을 시설업, 유통업, 제조업으로 분류하여 사업체 수, 매출액, 종사자 수의 현황을 살펴보았다. 둘째, 업종별 하위 종목의 사업체 수, 매출액 그리고 종사자 수의 변화를 확인하여 시장의 요구에 대한 트렌드의 변화를 통해 업종별 그리고 개별 종목 간 차이를 확인하였다. 셋째, 수상 레저스포츠 업종별 사업체 운영에 있어 장애가 되는 요인을 분석하여 향후 정책적으로 지원이 필요한 부분이 무엇인지 확인하였다. 전체적으로 국내 수상레저 스포츠 산업은 시장 변화에 매우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것으로 유추되며, 매년 변화의 폭이 크기 때문에 이러한 정책적 지원 역시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본 보고서에서는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민체육진흥공단 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이 공동 조사한 「2020년 레저스포츠산업 실태조사」의 결과보고서의 자료와 분석결과를 활용*하였다. 레저스포츠 종목은 육상, 수상, 항공 레저스포츠의 3가지로 구분하였으며, 본 보고서에서는 수상 종목에 초점을 맞춰 수상 종목의 현황 및 실태를 조사한 자료와 분석결과를 주로 활용하였다.

주요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시설업의 사업체 수는 유통업 및 제조업이 큰 폭으로 상승하였으며, 매출액 및 종사자 수는 유통업이 큰 폭으로 상승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둘째, 업종별 사업체 수는 시설업의 경우 스킨스쿠버, 웨이크보드/수상스키, 유통업의 경우 스킨스쿠버, 모터보트/파워보트, 제조업의 경우 모터보트/파워보트, 요트 종목의 폭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업종별 매출액의 변화를 살펴보면 시설업과 유통업은 스킨스쿠버, 제조업은 모터보트/파워보트 종목이 크게 증가하였다. 넷째, 업종별 종사자수의 변화를 보면 시설업은 래프팅, 유통업은 스킨스쿠버 종목이 전년도와 비교해 매우 크게 증가하였으며 제조업은 요트 종목이 전년대비 매출액이 감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제조업 종목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다섯째, 수상 레저스포츠 업종별 운영 장애요인을 살펴보면, 시설업의 경우 ‘제도 및 규제과다’, ‘자금부족’, ‘전문인력 부족’의 순으로 나타났고, 유통업은 ‘자금부족’, ‘제도 및 규제과다’, ‘기술정보 및 시장정보 부족’의 순이었으며, 제조업의 경우는 ‘자금 부족’, ‘인건비 상승’, ‘제도 및 규제 과다’의 순으로 나타났다.

* ‘2020 레저스포츠산업 실태조사(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 2020)’의 내용을 발췌·재인용·요약 하여 작성되었음(표, 그림 등 포함).

I. 서론

최근 해양레저스포츠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도와 참여도가 증가하면서 정부는 해양레저스포츠를 관광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수단으로 삼고 다양한 지원정책 및 관련 산업발전 등을 도모하고 있다. 이를 증명하듯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지역 특화 관광자원 사업*의 일환으로서 레저스포츠를 관광자원으로 활용해 지역의 활성화를 육성하는 사업 등을 추진 중이다. 특히, 해양레저 관광 분야는 부가가치와 일자리 창출에 있어서도 매우 큰 역할을 하고 있어 경제적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국내 해양경제 분야는 국민적 관심과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산업 규모 면에서 발전 속도가 빠르지 않은 편이다. 산업의 발전 속도를 증가하는 관심과 수요에 맞추기 위해서는 관련 있는 산업 현황 분석과 함께 현재 산업체가 겪고 있는 어려움을 파악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본 보고서에서는 다음과 같은 현황분석을 통해 수상 레저스포츠산업 이해관계자들의 합리적 의사결정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첫째, 레저스포츠산업내의 수상 종목의 업종별 현황을 전체적으로 분석하고, 산업 전반의 변화를 파악하여 업종 환경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둘째, 수상 레저스포츠 각 업종 및 종목별 사업체 수, 매출액, 종사자 수의 현황과 변화를 확인하여 레저스포츠 경영실태를 파악한다. 셋째, 수상 레저스포츠 종목별 사업체를 대상으로 사업체 운영에 존재하는 장애 요인을 파악하여 향후 정책적 지원 방향과 발전방향에 대한 근간을 마련하고자 한다.

수상 레저스포츠 업종과 종목별 기초 현황자료를 검토하고 이를 통해 경영환경에 대한 대응전략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본 보고서는 의의를 가진다. 특히 비교적 영세 사업장이 많은 스포츠산업 분야에서 그 동안 수상 레저스포츠 분야는 크게 관심을 받지 못했지만, 국민들의 수요는 점점 높아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책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보고서에서는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민체육진흥공단 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이 수행한 「2020년 레저스포츠산업 실태조사」의 결과보고서를 바탕으로 레저스포츠산업 중 수상 종목의 주요 현황을 확인하여 향후 정책적 지원 방향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시하고자 한다.

* 국민체육진흥공단의 '지역 특화 스포츠관광 산업 육성사업'

II. 본론: 수상 레저스포츠산업 현황 비교·분석

1. 수상 레저스포츠산업 일반 현황

1) 사업체 수

수상 종목의 산업 분류별 사업체 수는 <표 1>에 나타난 것과 같이 시설업의 경우 2018년 1,782개소에서 2019년 1,626개소로 8.8% 감소하였고, 유통업은 2018년 157개소에서 2019년 240개소로 52.9% 상승하였으며, 제조업은 2018년 98개소에서 2019년 133개소로 35.7% 상승하였다. 전체적으로 수상 레저스포츠산업의 사업체 수는 2018년 2,037개소에서 2019년 1,999개소로 1.9% 감소하였다. 전체 레저스포츠산업의 사업체 수가 4.1% 증가한 것에 반하여 수상 레저스포츠 사업체 수는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1> 수상 레저스포츠 사업체 수 현황

(단위 : 개)

구분	시설업		유통업		제조업		전체	
	2018년	2019년	2018년	2019년	2018년	2019년	2018년	2019년
수상	1,782	1,626(▼8.8%)	157	240(▲52.9%)	98	133(▲35.7%)	2,037	1,999(▼1.9%)
레저스포츠 전체	2,712	2,764(▲1.9%)	808	908(▲12.4%)	620	639(▲3.1%)	4,140	4,311(▲4.1)

* 종목 기준 사업체 수 : 2개 이상의 종목을 운영하는 사업체는 중복으로 집계됨

2) 매출액

수상 종목의 산업 분류별 매출액은 시설업의 경우 2018년 1,306억 원에서 2019년 1,511억 원으로 15.7% 상승하였고, 유통업은 2018년 1,427억 원에서 2019년 2,612억 원으로 83.1% 상승하였으며, 제조업은 2018년 1,279억 원에서 2019년 1,636억 원으로 27.9% 상승하였다. 전체적으로 수상 레저스포츠산업의 매출액은 2018년 4,012억 원에서 2019년 5,759억 원으로 43.5% 상승하였다. 전체 레저스포츠산업의 매출액이 7.1% 증가한 것에 비하여 수상 레저스포츠 매출액은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표 2> 수상 레저스포츠 매출액 현황

(단위 : 억 원)

구분	시설업		유통업		제조업		전체	
	2018년	2019년	2018년	2019년	2018년	2019년	2018년	2019년
수상	1,306	1,511(▲15.7%)	1,427	2,612(▲83.1%)	1,279	1,636(▲27.9%)	4,012	5,759(▲43.5%)
레저스포츠 전체	2,370	2,676(▲12.9%)	16,406	16,723(▲1.9%)	22,591	24,896(▲10.2%)	41,368	44,294(▲7.1%)

3) 종사자 수

수상 종목의 산업 분류별 종사자 수는 <표 3>에 나타난 것과 같이 시설업의 경우 2018년 5,992명에서 2019년 6,273명으로 4.7% 상승하였고, 유통업은 2018년 795명에서 2019년 922명으로 15.9% 상승하였으며, 제조업은 2018년 798명에서 2019년 780명으로 2.2% 감소하였다. 전체적으로 수상 레저스포츠산업의 종사자 수는 2018년 7,585명에서 2019년 7,975명으로 5.1% 상승하였다. 전체 레저스포츠산업이 3.1% 증가한 것에 비하여 수상 레저스포츠 종사자 수는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표 3> 수상 레저스포츠 종사자 수 현황

(단위 : 명)

구분	시설업		유통업		제조업		전체	
	2018년	2019년	2018년	2019년	2018년	2019년	2018년	2019년
수상	5,992	6,273(▲4.7%)	795	922(▲15.9%)	798	780(▼2.2%)	7,585	7,975(▲5.1%)
레저스포츠 전체	9,594	11,819(▲23.2%)	5,290	3,851(▼27.2%)	6,804	6,689(▼1.7%)	21,688	22,359(▲3.1%)

2. 수상 레저스포츠산업 업종별 사업체 수

1) 시설업

수상 레저스포츠 시설업의 사업체 수는 <표 4>에 나타난 것과 같이 2018년 스킨스쿠버(483개, 17.8%), 웨이크보드/수상스키(282개, 10.4%), 래프팅(249개, 9.2%)의 순으로 사업체 수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4> 수상 레저스포츠 시설업 사업체 수 현황

(단위: 개, %)

종목	2018년		2019년		증감률
	사업체 수	비중	사업체 수	비중	
래프팅	249	9.2	225	8.1	-9.6
웨이크보드/수상스키	282	10.4	268	9.7	-5.0
워터슬라이드	44	1.6	44	1.6	0.0
수상오토바이	25	0.9	26	0.9	4.0
윈드서핑/서핑	229	8.4	199	7.2	-13.1
스킨스쿠버	483	17.8	395	14.3	-18.2
카누/카약	92	3.4	84	3.0	-8.7
모터보트/파워보트	208	7.7	239	8.6	14.9
요트	170	6.3	146	5.3	-14.1
시설업 소계	1,782	65.7	1,626	58.8	-8.8
시설업 종목 합계	2,712	65.6	2,764	64.1	1.9

2019년에는 스킨스쿠버(395개, 14.3%), 웨이크보드/수상스키(268개, 9.7%), 모터보트/파워보트(239개, 8.6%)의 순으로 나타나 스킨스쿠버의 사업체 수가 18.2%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많은 사업체를 운영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모터보트/파워보트가 14.9% 상승하여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전체적으로 시설업의 사업체 수는 2018년 1,782개소에서 2019년 1,626개소로 8.8% 감소하였다. 한편 전체 레저스포츠 시설업의 사업체 수가 1.9% 증가한 것에 반해 수상 레저스포츠 시설업의 사업체 수는 8.8% 감소하며 반대 양상을 보였다.

2) 유통업

수상 레저스포츠 유통업의 사업체 수는 <표 5>에 나타난 것과 같이 2018년 스킨스쿠버(66개, 8.2%), 웨이크보드/수상스키(20개, 2.5%), 모터보트/파워보트(19개, 2.4%)의 순으로 사업체 수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2019년에는 스킨스쿠버(84개, 9.3%), 모터보트/파워보트(33개, 3.6%), 윈드서핑/서핑(27개, 3.0%)의 순으로 나타나 스킨스쿠버의 사업체 수가 27.3% 상승하여 가장 높은 비중을 보였다. 전체적으로 유통업의 사업체 수는 2018년 157개소에서 2019년 240개소로 52.9% 상승하였다. 한편 전체 레저스포츠 유통업의 사업체 수가 12.4% 증가한 것에 비해 수상 레저스포츠 유통업의 사업체 수는 52.9% 상승하여 비교적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표 5> 수상 레저스포츠 유통업 사업체 수 현황

(단위 : 개, %)

종목	2018년		2019년		증감률
	사업체 수	비중	사업체 수	비중	
래프팅	5	0.6	12	1.3	140.0
웨이크보드/수상스키	20	2.5	23	2.5	15.0
워터슬라이드	4	0.5	6	0.7	50.0
수상오토바이	9	1.1	20	2.2	122.2
윈드서핑/서핑	18	2.2	27	3.0	50.0
스킨스쿠버	66	8.2	84	9.3	27.3
카누/카약	11	1.4	24	2.6	118.2
모터보트/파워보트	19	2.4	33	3.6	73.7
요트	5	0.6	11	1.2	120.0
유통업 소계	157	19.4	240	26.4	52.9
유통업 종목 합계	808	100.0	908	100.0	12.4

3) 제조업

수상 레저스포츠 제조업의 사업체 수는 <표 6>에 나타난 것과 같다. 2018년에는 모터보트/파워보트(22개, 3.5%)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 요트(20개, 3.2%), 카누/카약(18개, 2.9%)의 순으로 나타났다.

2018년에는 모터보트/파워보트(22개, 3.5%)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 요트(20개, 3.2%), 카누/카약(18개, 2.9%)의 순으로 나타났다. 2019년에는 모터보트/파워보트(26개, 4.1%)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 스킨스쿠버(21개, 3.3%), 요트(20개, 3.1%)의 순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제조업의 사업체 수는 2018년 98개소에서 2019년 133개소로 35.7% 상승하였다. 한편 전체 레저 스포츠 제조업의 사업체 수가 3.1% 증가한 것에 비해 수상 레저스포츠 제조업의 사업체 수는 35.7% 상승폭으로 전년 대비 변동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표 6> 수상 레저스포츠 제조업 사업체 수 현황

(단위 : 개, %)

종목	2018년		2019년		증감률
	사업체 수	비중	사업체 수	비중	
래프팅	10	1.6	8	1.3	-20.0
웨이크보드/수상스키	1	0.2	6	0.9	500.0
워터슬라이드	1	0.2	9	1.4	800.0
수상오토바이	3	0.5	5	0.8	66.7
윈드서핑/서핑	10	1.6	19	3.0	90.0
스킨스쿠버	13	2.1	21	3.3	61.5
카누/카약	18	2.9	19	3.0	5.6
모터보트/파워보트	22	3.5	26	4.1	18.2
요트	20	3.2	20	3.1	0.0
제조업 소계	98	15.8	133	20.8	35.7
제조업 종목 합계	620	100.0	639	100.0	3.1

3. 수상 레저스포츠산업 업종별 매출액

1) 시설업

수상 레저스포츠 시설업의 매출액은 <표 7>에 나타난 것과 같이 2018년 스킨스쿠버(280억 원, 11.8%), 웨이크보드/수상스키(229억 원, 9.6%), 요트(227억 원, 9.6%)의 순으로 나타나 사업체 수와 비례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7> 수상 레저스포츠 시설업 매출액 현황

(단위 : 억 원, %)

종목	2018년		2019년		증감률
	매출액	비중	매출액	비중	
래프팅	137	5.8	350	13.1	156.9
웨이크보드/수상스키	229	9.6	163	6.1	-28.9
워터슬라이드	45	1.9	23	0.9	-48.1
수상오토바이	10	0.4	15	0.6	42.4
윈드서핑/서핑	176	7.4	198	7.4	12.3
스킨스쿠버	280	11.8	399	14.9	42.4
카누/카약	65	2.7	28	1.0	-57.2
모터보트/파워보트	138	5.8	129	4.8	-6.8
요트	227	9.6	208	7.8	-8.6
시설업 소계	1,306	55.1	1,511	56.5	15.7
시설업 종목 합계	2,370	100.0	2,676	100.0	12.9

한편 2019년에는 스킨스쿠버(399억 원, 14.9%), 래프팅(350억 원, 13.1%), 요트(208억 원, 7.8%)의 순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시설업의 매출액은 2018년 1,306억 원에서 2019년 1,511억 원으로 15.7% 상승하였다. 한편 전체 레저 스포츠 시설업의 매출액이 12.9% 상승하였고 수상 레저스포츠 시설업의 매출액 역시 15.7% 상승하며 비교적 비슷한 양상을 보였다.

2) 유통업

수상 레저스포츠 유통업의 매출액은 <표 8>에 나타난 것과 같이 2018년 윈드서핑/서핑(524억 원, 3.2%)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그 다음 스킨스쿠버(496억 원, 3.0%), 모터보트/파워보트(198억 원, 1.2%)의 순으로 나타났다. 2019년에는 스킨스쿠버(1,076억 원, 6.4%)가 116.7% 상승하여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37.8% 상승한 윈드서핑/서핑(722억 원, 4.3%), 요트(232억 원, 1.4%)의 순으로 매출액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전체적으로 유통업의 매출액은 2018년 1,427억 원에서 2019년 2,612억 원으로 83.1% 상승하였다. 한편 전체 레저 스포츠 유통업의 매출액이 1.9% 상승한 것에 비해 수상 레저스포츠 유통업의 매출액은 83.1% 상승하여 비교적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표 8> 수상 레저스포츠 유통업 매출액 현황

(단위: 억 원, %)

종목	2018년		2019년		증감률
	매출액	비중	매출액	비중	
래프팅	2	0.0	28	0.2	1,320.0
웨이크보드/수상스키	71	0.4	150	0.9	109.2
워터슬라이드	-	-	13	0.1	-
수상오토바이	63	0.4	137	0.8	118.1
윈드서핑/서핑	524	3.2	722	4.3	37.8
스킨스쿠버	496	3.0	1,076	6.4	116.7
카누/카약	28	0.2	62	0.4	122.9
모터보트/파워보트	198	1.2	193	1.2	-2.8
요트	44	0.3	232	1.4	426.4
유통업 소계	1,427	8.7	2,612	15.6	83.1
유통업 종목 합계	1,6,406	100.0	16,723	100.0	1.9

3) 제조업

수상 레저스포츠 제조업의 매출액은 <표 9>에 나타난 것과 같이 2018년 요트(624억 원, 2.8%)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 모터보트/파워보트(429억 원, 1.9%), 스킨스쿠버(121억 원, 0.5%)의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2019년에는 모터보트/파워보트(582억 원, 2.3%)가 35.6% 상승하면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은 요트

(409억 원, 1.6%), 카누/카약(299억 원, 1.2%)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래프팅(13억 원, 0.1%)은 51.6% 급감하였다. 전체적으로 제조업의 매출액은 2018년 1,279억 원에서 2019년 1,636억 원으로 27.9% 상승하였다. 한편 전체 레저 스포츠 제조업의 매출액이 10.2% 상승한 것에 비해 수상 레저스포츠 제조업의 매출액은 27.9% 상승하여 비교적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표 9> 수상 레저스포츠 제조업 매출액 현황

(단위 : 억 원, %)

종목	2018년		2019년		증감률
	매출액	비중	매출액	비중	
래프팅	28	0.1	13	0.1	-51.6
웨이크보드/수상스키	-	-	-	-	-
워터슬라이드	1	0.0	86	0.3	6,028.6
수상오토바이	-	-	-	-	-
윈드서핑/서핑	-	-	112	0.4	-
스킨스쿠버	121	0.5	136	0.5	12.5
카누/카약	77	0.3	299	1.2	290.3
모터보트/파워보트	429	1.9	582	2.3	35.6
요트	624	2.8	409	1.6	-34.4
제조업 소계	1,279	5.7	1,636	6.6	27.9
제조업 종목 합계	22,591	100.0	24,986	100.0	10.2

4. 수상 레저스포츠산업 업종별 종사자 수

1) 시설업

수상 레저스포츠 시설업의 종사자 수는 <표 10>에 나타난 것과 같다. 2018년 래프팅(1,413명, 14.7%), 웨이크보드/수상스키(1,114명, 11.6%), 모터보트/파워보트(932명, 9.7%)의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2019년에도 작년과 동일하게 래프팅(1,983명, 16.8%), 웨이크보드/수상스키(1,100명, 9.3%), 모터보트/파워보트(1,052명, 8.9%)의 순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시설업의 종사자 수는 2018년 5,992명에서 2019년 6,273명으로 4.7% 상승하였다. 한편 전체 레저스포츠 시설업의 종사자 수가 23.2% 상승한 것에 비해 수상 레저스포츠 시설업의 종사자 수는 4.7%의 낮은 상승폭을 기록하였다.

<표 10> 수상 레저스포츠 시설업 종사자 수 현황

(단위 : 명, %)

종목	2018년		2019년		증감률
	종사자 수	비중	종사자 수	비중	
래프팅	1,413	14.7	1,983	16.8	40.3
웨이크보드/수상스키	1,114	11.6	1,100	9.3	-1.2
워터슬라이드	288	3.0	278	2.4	-3.5
수상오토바이	133	1.4	172	1.5	29.2
윈드서핑/서핑	565	5.9	558	4.7	-1.2
스킨스쿠버	604	6.3	492	4.2	-18.6
카누/카약	339	3.5	255	2.2	-24.8
모터보트/파워보트	932	9.7	1,052	8.9	12.8
요트	604	6.3	384	3.2	-36.4
시설업 소계	5,992	62.5	6,273	53.1	4.7
시설업 종목 합계	9,594	100.0	11,819	100.0	23.2

2) 유통업

수상 레저스포츠 유통업의 종사자 수는 <표 11>에 나타난 것과 같이 2018년 윈드서핑/서핑(374명, 7.1%)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그 다음 스킨스쿠버(213명, 4.0%), 모터보트/파워보트(82명, 1.6%) 순으로 나타나 매출액과 비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2019년에는 스킨스쿠버(272명, 7.1%)가

<표 11> 수상 레저스포츠 유통업 종사자 수 현황

(단위 : 명, %)

종목	2018년		2019년		증감률
	종사자 수	비중	종사자 수	비중	
래프팅	10	0.2	16	0.4	60.0
웨이크보드/수상스키	46	0.9	161	4.2	248.8
워터슬라이드	-	-	42	1.1	-
수상오토바이	36	0.7	50	1.3	38.9
윈드서핑/서핑	374	7.1	247	6.4	-34.0
스킨스쿠버	213	4.0	272	7.1	27.5
카누/카약	20	0.4	51	1.3	155.9
모터보트/파워보트	82	1.6	46	1.2	-44.5
요트	13	0.3	37	1.0	180.5
유통업 소계	795	15.0	922	23.9	15.7
유통업 종목 합계	5,290	100.0	3,851	100.0	-27.2

27.5% 상승하여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34.0% 하락한 윈드서핑/서핑(247명, 64%), 카누/카약(51명, 1.3%)의 순으로 매출액과 비례하여 종사자 수가 많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전체적으로 유통업의 종사자 수는 2018년 795명에서 2019년 922명으로 15.7% 상승하였다. 한편 전체 레저스포츠 유통업의 종사자 수가 27.2% 감소한 것에 반해 수상 레저스포츠 유통업의 종사자수는 15.7% 상승하여 비교적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3) 제조업

수상 레저스포츠 제조업의 종사자 수는 2018년 요트(361명, 5.3%)가 가장 높았고, 그 다음 모터보트/파워보트(231명, 3.4%), 카누/카약(81명, 1.2%)의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2019년에는 요트(229명, 3.4%)가 36.7% 하락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는 모터보트/파워보트(163명, 2.3%), 카누/카약(149명, 2.2%)의 순으로 나타났다. 워터슬라이드의 경우 1,700.0% 상승하여 종사자 수는 36명(0.5%)으로 확인되었다. 전체적으로 제조업의 종사자 수는 2018년 798명에서 2019년 780명으로 13.4% 감소하였다. 한편 전체 레저스포츠 제조업의 종사자 수가 1.7% 감소하였으며, 수상 레저스포츠 제조업의 종사자수 역시 2.2% 감소하며 비슷한 감소율 보였다.

< 표 12 > 수상 레저스포츠 제조업 종사자 수 현황

(단위: 명, %)

종목	2018년		2019년		증감률
	종사자 수	비중	종사자 수	비중	
래프팅	60	0.9	38	0.6	-36.7
웨이크보드/수상스키	-	-	-	-	-
워터슬라이드	2	0.0	36	0.5	1,700.0
수상오토바이	-	-	-	-	-
윈드서핑/서핑	-	-	67	1.0	-
스킨스쿠버	62	0.9	99	1.5	58.2
카누/카약	81	1.2	149	2.2	84.0
모터보트/파워보트	231	3.4	163	2.4	-29.3
요트	361	5.3	229	3.4	-36.7
제조업 소계	798	11.7	780	11.7	-2.2
제조업 종목 합계	6,804	100.0	6,689	100.0	-1.7

5. 수상 레저스포츠산업 업종별 운영 장애 요인

1) 시설업

2019년 수상 레저스포츠 시설업의 운영 장애 요인 1순위와 2순위의 합은 <표 13>에 나타난 것과 같이 전체적으로 '제도 및 규제 과다'가 48.7%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 '자금 부족(42.2%)', '전문인력 부족

(35.7%)', '레저스포츠 시장 정보 부족(33.4%)'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13> 수상 레저스포츠 시설업 운영 장애 요인(1+2순위)

(복수응답, 단위 : %, 년)

종목	사례수	자금 부족	제도 및 규제 과다	전문 인력 부족	레저 스포츠 시장 정보 부족	경영 노하우 부족	시설 노후화	안전 규정의 미흡	기타	없음
래프팅	225	33.0	55.7	34.1	38.6	17.0	5.7	8.0	1.1	0.0
웨이크보드/수상스키	268	30.5	48.1	37.0	32.5	18.2	7.8	10.4	5.2	0.6
워터슬라이드	44	18.2	50.0	54.5	36.4	18.2	4.5	18.2	0.0	0.0
수상오토바이	26	37.5	50.0	62.5	25.0	0.0	0.0	12.5	0.0	0.0
윈드서핑/서핑	199	44.6	62.8	29.8	24.0	8.3	6.6	6.6	11.6	0.8
스킨스쿠버	395	57.1	48.6	30.9	31.4	14.3	2.9	2.3	5.1	0.0
카누/카약	84	51.7	48.3	20.7	41.4	3.4	13.8	3.4	6.9	0.0
모터보트/파워보트	239	29.6	46.1	40.1	34.9	18.4	7.9	8.6	3.3	1.3
요트	146	57.5	24.7	47.9	38.4	20.5	4.1	2.7	2.7	0.0
합계	1,626	42.2	48.7	35.7	33.4	15.1	5.9	6.6	4.8	0.4

2) 유통업

2019년 수상 레저스포츠 유통업의 운영 장애 요인 1순위와 2순위의 합은 <표 14>에 나타난 것과 같이 전체적으로 '자금 부족'이 58.5%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 '제도 및 규제 과다(45.4%)', '기술정보 및 시장정보 부족(29.3%)', '외국 업체의 시장 잠식(26.8%)'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14> 수상 레저스포츠 유통업 운영 장애 요인(1+2순위)

(복수응답, 단위 : %, 년)

종목	사례수	자금 부족	제도 및 규제 과다	기술 정보 및 시장 정보 부족	인건비 상승	외국 업체의 시장 잠식	경영 노하우 부족	전문 인력 부족	기타	없음
래프팅	12	33.3	33.3	0.0	33.3	66.7	0.0	0.0	0.0	0.0
웨이크보드/수상스키	23	50.0	25.0	50.0	25.0	25.0	0.0	25.0	0.0	0.0
워터슬라이드	6	50.0	50.0	0.0	50.0	0.0	0.0	0.0	0.0	0.0
수상오토바이	20	50.0	66.7	33.3	0.0	16.7	0.0	0.0	16.7	0.0
윈드서핑/서핑	27	85.7	42.9	42.9	0.0	28.6	0.0	0.0	0.0	0.0
스킨스쿠버	84	64.0	40.0	24.0	12.0	32.0	0.0	4.0	20.0	0.0
카누/카약	24	44.4	55.6	33.3	0.0	33.3	0.0	0.0	22.2	0.0
모터보트/파워보트	33	53.8	53.8	30.8	23.1	7.7	15.4	7.7	7.7	0.0
요트	11	60.0	60.0	20.0	40.0	20.0	0.0	0.0	0.0	0.0
합계	240	58.5	45.4	29.3	14.5	26.8	2.1	4.9	11.7	0.0

3) 제조업

2019년 수상 레저스포츠 제조업의 운영 장애 요인 1순위와 2순위의 합은 <표 15>에 나타난 것과 같이 전체적으로 '자금 부족'이 50.0%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 '인건비 상승(34.0%)', '제도 및 규제 과다(23.5%)', '외국 업체의 시장 잠식(21.2%)'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15> 수상 레저스포츠 제조업 운영 장애 요인(1+2순위)

(복수응답, 단위 : %, 년)

종목	사례수	자금 부족	인건비 상승	외국 업체의 시장 잠식	제도 및 규제 과다	기술 정보 및 시장 정보 부족	전문 인력 부족	경영 노하우 부족	기타	없음
래프팅	8	50.0	50.0	50.0	0.0	50.0	0.0	0.0	0.0	0.0
워터슬라이드	9	33.3	66.7	0.0	0.0	33.3	66.7	0.0	0.0	0.0
윈드서핑/서핑	19	75.0	0.0	25.0	50.0	25.0	0.0	0.0	0.0	0.0
스킨스쿠버	21	40.0	40.0	40.0	20.0	20.0	20.0	10.0	10.0	0.0
카누/카약	19	66.7	16.7	16.7	0.0	16.7	16.7	33.3	33.3	0.0
모터보트/파워보트	26	50.0	21.4	21.4	35.7	42.9	14.3	7.1	0.0	0.0
요트	20	28.6	71.4	0.0	28.6	42.9	14.3	0.0	0.0	0.0
합계	122	50.0	34.0	21.2	23.5	31.8	16.3	8.4	6.9	0.0

III. 결론

본 보고서는 수상 레저스포츠산업의 전반적인 현황을 토대로 수상 레저스포츠산업 활성화를 위한 효과적인 정책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산업을 시설업, 유통업, 제조업으로 구분하여 현황 및 운영 장애 요인을 분석하였다. 또한, 세부적인 종목별 산업 현황을 조사한 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결론 및 시사점을 제안한다.

첫째, 수상 레저스포츠 관련 사업체 수를 종목별로 보면, 2019년 기준 시설업이 1,626개, 유통업이 240개, 제조업이 133개로 확인되었다. 매출액은 2019년 기준 시설업 1,511억 원, 유통업 2,612억 원, 제조업 1,636억 원으로 유통업이 작년대비 83.1% 증가하여 시설업이나 제조업과 비교해 증가규모가 큰 것으로 확인되었다. 종사자 수는 2019년 기준 시설업 6,273명, 유통업 922명, 제조업 780명으로 시설업이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설업의 경우 전년도와 비교해 사업체 수가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매출액은 증가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2019년도의 경우 전년도와 비교해 사업체 당 경영 성과가 향상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하지만 소비자들이 수상 레저스포츠 관련 서비스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물리적 접촉 기회가 적어졌다는 것은 수상 레저스포츠 시장의 지속적인 확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이와 관련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 볼 수 있다.

둘째, 업종별 세부 종목에 따른 사업체 수 현황을 보면 2019년 기준으로 시설업의 경우 스킨스쿠버(395개, 14.3%), 웨이크보드/수상스키(268개, 9.7%), 모터보트/파워보트(239개, 8.6%)의 순으로 나타나 스킨스쿠버의 사업체 수가 18.2%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많은 사업체를 운영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유통업은 스킨스쿠버(84개, 9.3%), 모터보트/파워보트(33개, 3.6%), 윈드서핑/서핑(27개, 3.0%)의 순으로 나타나 스킨스쿠버의 사업체 수가 27.3% 상승하여 가장 높은 비중을 보였다. 제조업의 경우 2019년 기준 모터보트/파워보트(26개, 4.1%)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 스킨스쿠버(21개, 3.3%), 요트(20개, 3.1%)의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워터슬라이드와 웨이크보드/수상스키는 전년대비 각각 800%, 500%의 증감률을 기록하며 급성장하였다.

셋째, 업종별 세부 종목에 따른 매출액 현황을 보면 2019년 기준으로 시설업의 경우 스킨스쿠버(399억 원, 14.9%), 래프팅(350억 원, 13.1%), 요트(208억 원, 7.8%)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래프팅은 전년 대비 159.9% 상승하며 가장 높은 증감률 기록하였다. 유통업은 2019년 기준으로 스킨스쿠버(399억 원, 14.9%), 래프팅(350억 원, 13.1%), 요트(208억 원, 7.8%)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시설업과 마찬가지로 전년 대비 래프팅이 1,320.0%의 눈에 띄는 상승률을 보였다. 제조업의 경우 전년 대비 모터보트/파워보트(582억 원, 2.3%)가 35.6% 상승하면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은 요트(409억 원, 1.6%), 카누/카약(299억 원, 1.2%)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래프팅(13억 원, 0.1%)은 51.6% 급감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넷째, 업종별 세부 종목에 따른 종사자 수 현황을 보면 2019년 기준으로 시설업의 경우 2018년과 동일하게 래프팅(1,983명, 16.8%), 웨이크보드/수상스키(1,100명, 9.3%), 모터보트/파워보트(1,052명, 8.9%)의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요트와 카누/카약은 작년 대비 각각 36.4%, 24.8% 감소하면서 2019년에는 비교적 낮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유통업은 스킨스쿠버(272명, 7.1%)가 27.5% 상승하여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34.0% 하락한 윈드서핑/서핑(247명, 64%), 카누/카약(51명, 1.3%)의 순으로 매출액과 비례하여 종사자 수가 많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제조업의 경우 2019년에는 요트(229명, 3.4%)가 36.7% 하락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는 모터보트/파워보트(163명, 2.3%), 카누/카약(149명, 2.2%)의 순으로 나타났다. 워터슬라이드의 경우 1,700.0% 상승하여 종사자 수는 36명(0.5%)으로 확인되었다.

다섯째, 수상 레저스포츠 업종별 운영 장애요인을 살펴보면, 시설업의 경우 '제도 및 규제 과다', '자금부족', '전문인력 부족'의 순으로 나타났고, 유통업은 '자금부족', '제도 및 규제과다', '기술정보 및 시장정보 부족'의 순이었으며, 제조업의 경우는 '자금 부족', '인건비 상승', '제도 및 규제 과다'의 순으로 나타났다. 업종별 운영에 있어서 대표적인 장애 요인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자금부족(시설업 42.4%, 유통업 58.5%, 제조업 50.0%)'으로 나타났다. 자금 지원 확대에 대한 수요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정부의 금융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 또한 '제도 및 규제의 과다(시설업 48.7%, 유통업 45.4%,

제조업 23.5%)’ 역시 비교적 높은 장애요인으로 선정되어 정부의 업종별 제도 및 규제 완화 등의 다양한 제도 개선이 요구된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수상 레저스포츠 업종별 장애요인의 중요도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전체 시장 발전을 위해서는 차별화된 정책 수요를 확인하고 그에 따른 적절한 지원이 필요하다.

Sport Industry SI 포커스

발간목적:

「SI (Sports Industry) 포커스」는 국민체육진흥공단 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에서 수행하는 연구 및 사업의 결과물에 대한 심층·추가 분석을 바탕으로 스포츠산업 이해관계자의 합리적 경영의사결정을 위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발행처: 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 스포츠산업연구실

김상훈(스포츠산업연구실, 실장 / 책임연구위원)

황종학(스포츠산업연구실, 수석연구위원)

유의동(스포츠산업연구실, 수석연구위원)

정지명(스포츠산업연구실, 책임연구위원)

김민수(스포츠산업연구실, 선임연구위원)

고경진(스포츠산업연구실, 선임연구위원)

신성연(스포츠산업연구실, 연구위원)

박선영(스포츠산업연구실, 연구위원)

류윤지(스포츠산업연구실, 초빙연구원)